

“미국 Extension Service에서의 가정관리학 분야의 통합적 실천”에 대한 토론

이 경 영(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1998년 한국가정관리학회에서 1차로 1,126명에게 가정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한 이래 3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실제 가정복지사라는 이름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장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경험은 저에게 가정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좀더 깊은 관심과 고민을 하게 해 주었으며, 또한 가정복지와 관련된 여러 민·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가정학 전공자들이 사회 참여 및 실천에 있어서 이제까지 미흡했던 점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지난해에는 가정복지사 제도가 가정관리학회 차원에서 전체 가정학 관련 학회 차원으로 확대되고, 「가정복지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등 여러 다양한 차원에서 가정복지사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학 전공자들, 구체적으로 가정복지사로서 자격을 부여받은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많지 않은 현실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원인 및 대책에 대해서는 차후 따로 논의되어야겠지만, 여기에서 제가 외람되이 잠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가정 복지과 관련된 현장 활동에서 가정관리학 분야의 전공자들이 얼마만큼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냉정한 자기평가를 거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김외숙교수님께서 미국의 Extension Service를 직접 보고 배워오신 이 결과물을 통해 많은 아이디어와 추진력을 얻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외숙교수님의 논문과 관련하여 저도 부족하지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가정관리학의 분야의 통합성에 관한 것과 가정복지사가 활동할 수 있는 현장 활동-여기에서

Extension Service로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에 대해 제가 서초구청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외숙교수님께서도 우리의 실생활에서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경우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실제 서초구 반포3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일하는 동안 이에 대해 절실히 통감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논의는 가정복지사에 관한 여러 논문들을 통해서 가정복지(사)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어 왔습니다.

가정복지와 관련되어 통합적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평소 자신 혹은 주변의 가정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조금만 자세히 관찰해 보면, 개개의 가정생활에서 표출되는 여러 문제들이 단순한 하나의 문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복지는 가족원의 개별적인 동시에 전체적인 복지가 향상되는 것으로 목표로 합니다. 이는 모든 가족원의 전 생애 과정에 모두 관여되는 것이며, 외부환경인 사회와의 교류와도 관련된 것입니다. 어쩌면 바로 이 지점이 여타의 다른 가정학 관련 전공자들보다, 가정관리학 전공자들이 이러한 통합적 관점을 좀더 많이 견지할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생활에 대한 통합적 관점 및 실천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고 처방을 내리는 단기적 문제해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통합적 실천 속에는 가정과 사회의 관계, 사회 속에서 개개인의 위상 등과 미래 사회에서 가정의 모습은 어떠하며, 역할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한 통찰과 더불어 가정과 지역사회에 대한 관계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통합적 실천과 더불어 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것입니다. 가정학이 여타의 다른 학문에 비해 사회적인 관심이 떨어지는 것은 누구나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이를 잘 알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가정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전문적 지식 및 경험을 통해 처방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만 많은 사람들의 가정학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며, 사회적 지지를 얻어낼 수 있으리라 봅니다.

김외숙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여러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들이 단지 가정학의 한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면, 영양학, 의류학, 가족학, 재무관리 등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이러한 가정생

활 속에서 요구되는 것을 파악하고 진단하여, 문제해결의 방향을 짚어 줄 수 있으려면 앞서 논의된 것처럼 통합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가정학 관련 전공만을 습득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다른 분야들과의 활발한 연계에도 당연히 나서야만 진정한 통합적 실천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Extension Service와 같이 가정관리학 전공자들이 통합적 관점을 갖고 실천할 수 있는 영역 및 활동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복지체계는 이제까지 주로 요보호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복지관련 체계들이 이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공적 복지전달 체계상에서는 가정학 관련 전공자들-대표적으로 가정복지사-의 위상 및 진출 가능성이 다소 애매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인간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 것이며, 점차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국민 혹은 지역주민의 복지실현에 있는 것을 보면, 이제까지의 소극적인 복지 차원에서 일반인들에게 확대된, 그리고 보편적인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으며,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 복지로 전환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가정복지사의 역할 및 참여의 장을 보다 확대할 수 있는 계기는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김의숙교수님께서도 예로 들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의 가정복지사의 활동은 지방자치가 실현되면서 학계와 지역이 적극적으로 연계해 나가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주민자치센터-혹은 주민복지센터, 문화의 집 등으로 다양함-는 그 역할이나 기능에서 아직 구체화되거나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지난해 4월 서초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 반포3동 주민자치센터에 갔을 때, 실제 주민자치센터로 기능하기 위한 인적 자원 구성 및 지원체계가 매우 미미한 상태였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할 전문인력이 전무한 것을 물론이며,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에 대한, 가정복지에 대한 정확한 관점을 갖고 있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그곳에 있는 동안 시작된 프로그램은 주부대상의 컴퓨터 교육과 외국어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주민자치센터의 이용 주체가 주부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우선적으로 주부가 느끼는 문제를 해결하여 주부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가정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 활동을 통해 가정 전체의 복지를 향상시켜 주는 프로그램의

기획 및 실행이 필요합니다. 즉 가정생활에 대해 통합적 관점을 갖고, 전반적인 가정생활의 진단을 하고, 문제점 및 욕구를 파악하여 개별적인 가족, 가정자원관리, 소비자, 주거, 아동 등의 세부 영역으로 나뉘어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역할을 하기에는 가정복지사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러한 학계와 지역이 연계된 Extension Service를 구현하기 위한 장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법이나 제도의 마련과 동시에, 지방화 추세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욕구를 먼저 파악하고, 지역에 기반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에 제안하고 참여하는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민간차원의 복지전달 채널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할 것입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개별 전공별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Extension Service Program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으나, 이를 조정하고 기획하는 측면에서는 다소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학 전공자들이 진출하기 위해서 설득력 있고, 큰 틀에서 적용 가능한 기획안과 같은 것을 준비하여 부딪쳐보는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학문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미흡한 저를 여러 훌륭한 교수님들과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지금까지 두서없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